CONTENTS

인사말 02

의회 지역구 현황 04

주요뉴스 06

회기별 처리안건 09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정활동 20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안

상임위원회 활동 46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6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포토 61

도움 되는 정보 63

목포시의회 안내 65

인사말

목포시의회 의장
문 차 복

"목포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그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제6호 의정소식지로 시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12대 의회의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달력은 한 장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시정 추진이 목포 발전과 목포시민 행복이라는 대전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의 소중함과 무게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나누어주신 4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올 계묘년의 첫해를 기다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목포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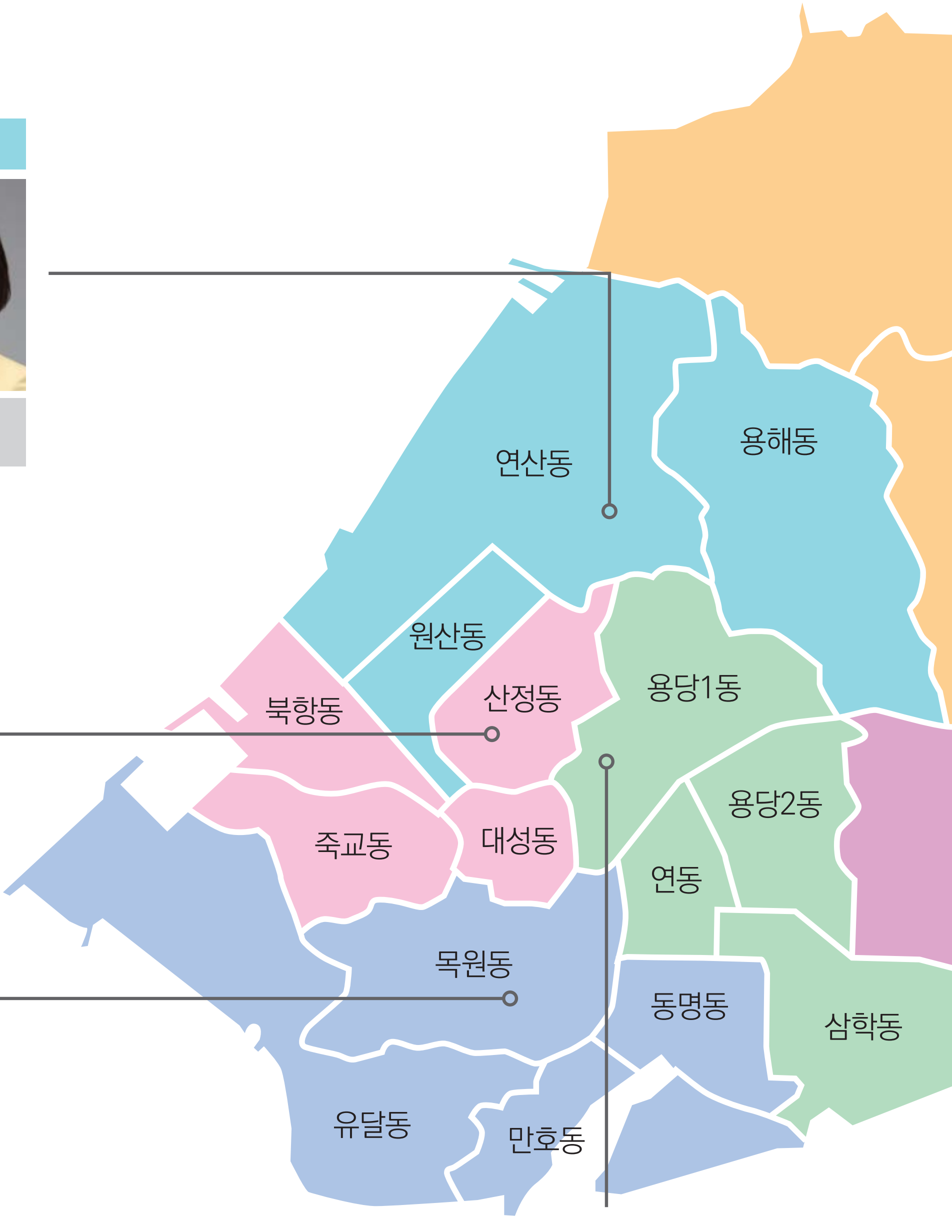
의회 지역구 현황

마 선거구 (연산동·원산동·용해동)

고 경 욱	조 성 오	최 현 주
더불어민주당 (초선)	더불어민주당 (5선)	정의당 (초선)

다 선거구 (산정동·대성동·죽교동·북항동)

박 창 수	송 선 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무소속 (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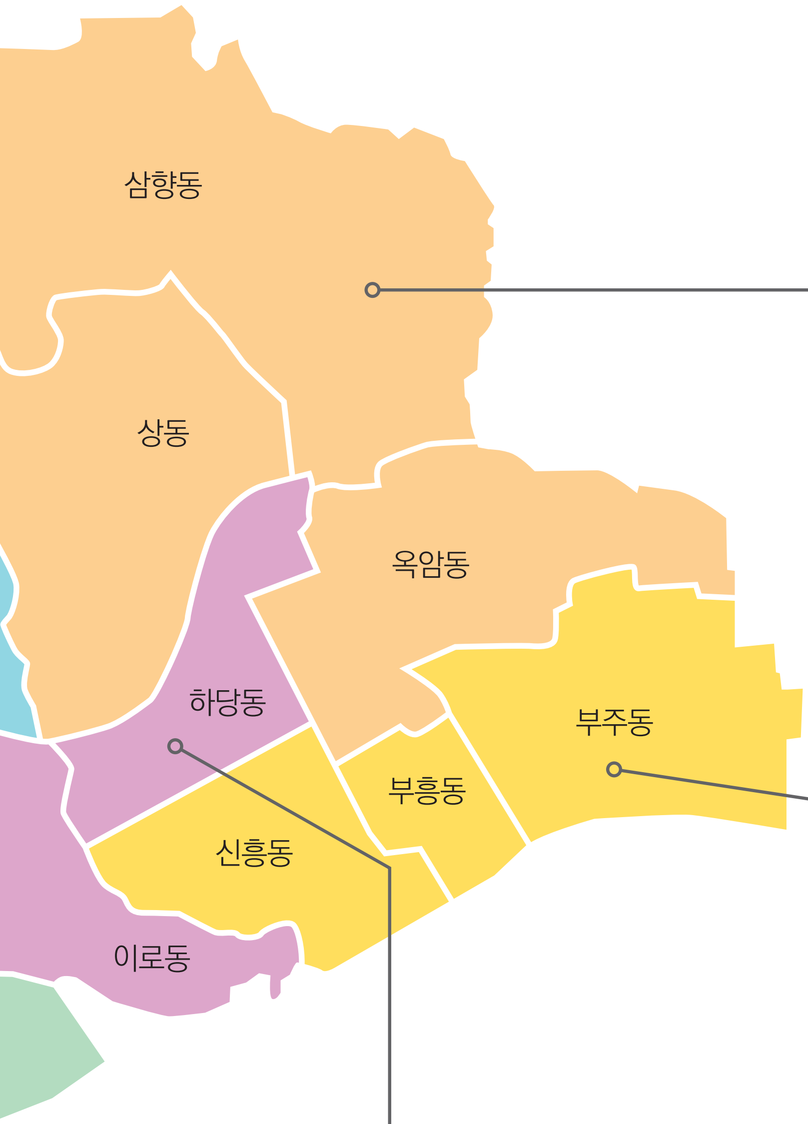


라 선거구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유 창 훈	이 형 완	정 재 훈
더불어민주당 (초선)	더불어민주당 (2선)	더불어민주당 (초선)

가 선거구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김 귀 선	박 용 식	박 효 상
더불어민주당 (3선)	더불어민주당 (2선)	더불어민주당 (초선)



바 선거구 (삼향동·옥암동·상동)

문 차 복 더불어민주당 (2선)	이 동 수 무소속 (초선)	최 원 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사 선거구 (부흥동·신흥동·부주동)

박 용 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백 동 규 정의당 (3선)	최 지 선 더불어민주당 (초선)

나 선거구 (이로동·하당동)

김 관 호 더불어민주당 (2선)	최 환 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박 수 경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 유 정 정의당 (초선)	최 유 란 더불어민주당 (초선)

: 주요뉴스

목포시의회, 버스노조파업 관련 긴급 대책 회의 개최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20일, 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 집행부(교통행정과)로부터 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상황과 버스 비상수송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으며 향후 집행부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의회는 오늘날의 버스 노조 파업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비롯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시민의 교통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버스 노조 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선 개편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강화 등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회의 개최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긴급히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문차복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긴급회의에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사고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 국민애도기간 중에 목포시 축제 관련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행사 참여를 취소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문차복 의장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이한철 대표 사퇴 및 시내버스 면허 반납 촉구 성명서 발표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9일, 태원여객 ·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사퇴와 시내버스 면허 반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6년간 목포시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목포시내버스도 없었음을 말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올해도 118억 원의 혈세가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어떠한 자구책도 없이 마치 용돈 타령하듯 세금을 요구하는 이한철 대표의 안하무인 작태에 목포시민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적자 경영에 대한 목포시의 보전을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자구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 집행부에는 연이은 비상근무와 자발적 시민 합승 등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지속적인 대책 강구와 함께 시내버스 회사의 휴폐업까지 미리 대비하여 사후 대책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내버스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의원 발의 안건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지선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 이를 반영하여 용어 개정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지선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마련
주요내용	•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정신지체 장애인 용어 삭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형완 의원 외 4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2.5.19.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주요내용	• 중복된 관련 조문 삭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 • 외부강의 월 3회를 초과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자	이형완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정이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의 통보 및 검토(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목포시 가로수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형완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위임에서 벗어난 조항과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변경 및 이에 따른 용어정비 • 도시숲 등 기본계획과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안 제5조의6) • 담당 부서와의 협의 규정(안 제6조) • 도로별 보도폭 넓이에 따른 식재기준 및 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8조~안 제10조) • 도시숲 등의 관리 방법, 시장의 점검의무 및 시민 참여(안 제12조~안 제19조) • 민간위탁 승인절차, 비용부담 및 과태료,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를 신설(안 제20조~안 제26조)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박효상 의원 외 4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함에 따라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모
주요내용	• 생방송 중계 관련 조항 신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효상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착한가격업소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자	정재훈 의원 외 4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주요내용	• 2023년 월정수당 : 2022년도 월정수당에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만큼 합산한 금액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정재훈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개정
주요내용	• 제목 ‘관람의 금지’를 ‘관람의 제한’으로 개정 • 관람 제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8조제1호~제3호, 제5호)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백동규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부결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 직무가 전문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자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 • 고문변호사의 위촉 정원 확대와 해촉 규정을 신설 • 장기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원석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생계급여 감액 및 수급자격 박탈사례가 없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액 상향 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 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 신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원석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생계급여 감액 및 수급자격 박탈사례가 없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 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 신설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귀선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정이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 급식지원의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안 제4조 ~ 제6조)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안 제7조 ~ 제12조) •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안 제13조 및 제14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수경 의원 외 8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정이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시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4조)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고경욱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 참여로 자치사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 17명 → 25명으로 수정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유정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개정이유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한 사업추진 범위(안 제3조) •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2조)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유정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장애차별표현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분리·제한하는 명분이 되어 제도적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확인된 용어를 개정
주요내용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로 개정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 · 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창수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피한정후견인"을 일괄 삭제 개정함으로써,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주요내용	• 명인 지정 취소 및 강사 해촉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내용 삭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유란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 보장 및 지원
주요내용	• 거리공연 정의 중 공연규모를 제한하는 '소규모로'를 삭제 • 거리공연 중 특정 분야(음악)만을 의미하고 있는 'Busking Zone'을 삭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현주 의원 외 8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목포시 소재 단체 및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구성원 인원수 30명 → 10명으로 수정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관호 의원 외 8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주요내용	•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 • 「영농부산물」 정의 규정 •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 지원(안 제4조 제2호라목)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용준 의원 외 9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주요내용	• 부칙 제3조(유효기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환석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 12. 22.) 사항에 따라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참고 조항 변경 • 상위법령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수정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용식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차량의 범위를 공용차량으로 한정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추가 •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신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11. ~ 12. 19.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조성오 의원 외 7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개정이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 시 무상운송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운행 경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
주요내용	• 정의에 실비보상 규정 • 무상운송 실비보상 신설

그 밖의 처리안건

-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가결]
-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수정가결]
-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정질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 12. 15.)

최유란 의원

비례대표
관광경제위원회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에 관하여]

최유란 의원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우리 목포시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관광점자책자 발간,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활동 지원 등의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행약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유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포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난관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하도 전망대가 내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데크로 가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혹은 어르신들은 어디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 관광홈페이지에는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홈페이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 정보는 그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시 관광사업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추진계획을 아주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상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우리 시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지에 대해 관광약자 당사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체 관광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정책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들을 받아들이셔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홍률 시장

최유란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불편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할 것이고요. 당사자 중심의 관광지 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최유란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 대상자 구분, 예산 구분, 성별 수혜 분석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으며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의 항목이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정 전라남도양성평등센터에서 제공하는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6건만 신청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는 1건도 컨설팅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의 강화와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전문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작성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함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2023년에는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인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과 또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 필요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사업, 양성평등 관련 포럼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정책부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 12. 15.)

유창훈 의원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기획복지위원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유창훈 의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에 관한 의향서 원본 공개 및 로드맵 구상에 대해 약속을 해 주신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
1조원을 그 회사는 지금도 목포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여건이 무르익고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외자유치라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러 제반 여건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사업으로 우선 지켜가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지방자치법」 48조와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 요구는 최소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목포시청 일부 과의 경우 자료 제출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된 경우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 여러 의원이 요구한 동일한 안건의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 자료 제출 건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홍률 시장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해당 의원님이라든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이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 있다면 우리 직원들은 확실히 개선해서 즉각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훈 의원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들어와서 시민소통실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시정홍보라는 명목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고 업무 내용도 홍보전략 수립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시정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소통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

소통업무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적절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통실을 폐지한다는 상징적인 키워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민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시민에게 바란다' 등 관련 업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또는 시장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그 실에서 수렴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일일이 모든 시민 개개인을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최근에 시립도서관장이 공모를 거쳐 임명된 것으로 압니다.
민선6기부터 채용 공고 요강을 한번 찾아봤는데 모두 사서자격증 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 한 번도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관장으로 채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서자격 소지 외에도 지원자격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대된 지원자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홍률 시장

그것은 모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훈 의원

「도서관법」 제34조 1항에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목포시립도서관의 관장도 경력직 사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도서관법」에 맞게 개정해 주시고, 관련 규정들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임사무국장이 11월 1일 이미 내정돼 있었고,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이사회는 11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11월 17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사회 사무국장 채용 추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사무국장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분 직업란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이 적어져 있었고 또 이사회 안건에 동의한 날인을 기재하신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홍률 시장

아니죠. 그때 의안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때 모든 절차대로 다 끝났고 임명장도 아마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임시이사회를 해서 했고 그때 거기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사무국장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거기서 성실하게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유창훈 의원

그 부분, 신변이라든지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 열심히 하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사채용 부분이라든지 다른 업무적인 부분, 시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홍률 시장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 12. 16.)

최현주 의원

연산동•원산동•용해동
관광경제위원회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환경문제에 관하여]

최현주 의원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에서는 FRP정비수리업이나 선박 정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 페인트, 소음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작년 12월에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 의원
자료를 보면 산정농공단지의 미세먼지 PM-10, PM-2.5은 대불산단하고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진산단도 마찬가지로 대불산단 쪽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삽진산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통이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질 실태조사하고 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셨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공청회나 간담회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기오염 측정은 중금속이 빠져 있습니다. 중금속 측정망은 국가사업이죠? 2025년까지 설치 계획이 이미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25년이 지나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중금속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현주 의원
지금 2022년인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에 관하여]

최현주 의원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어떤 방향에서 개편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23개 노선인데 적자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선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 불편도 너무 과중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해서 시의회나 시민들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 의원
노선은 저는 두 단계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우리가 노선을 짤 때 수익노선과 필요노선 그리고 폐지해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노선이 개편이 돼야 이것이 이후 운영체계하고 맞아진다고 생각하고요. 2단계, 목포시에서 노선조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관련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과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선 개편이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공영제 용역이든 준공영제 용역이든 들어가야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시점과 관련해서 이 점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 의원
법적 근거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면허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지금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가 현저한 불량상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태원, 유진에 대해서 운행명령이나 면허 취소 행정처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박홍률 시장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적인 기초자료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 12. 16.)

최환석 의원

이로동·하당동
도시건설위원회

[안전통학로에 관하여]

최환석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1월 26일부터 석현초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제일풍경채 너머까지 구석구석 걸어보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통학로 미설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호시장 인근 어린이 통학로 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청호시장 부분은 현재 청호시장 주차장이 우리 시유지가 되겠는데요.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청호시장 상인회하고 지난달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측에서 준공 전, 그러니까 내년 5월 전까지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도 1.5m와 어린이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를 하겠고. 그 이후에 한 60m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사유지가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또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다보면 내년 준공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도로에 디자인 도막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일건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 의원
석현초 주변에는 제일3차·5차·6차, 빌리앙뜨 등 약 1만 세대가 거주 중이며 제일풍경채가 준공되면 내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고 인근 소단위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증가와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석현초 주변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석현초를 이용하고 있는 단지는 총 17개 단지에 5,062세대입니다. 청호시장 석현초 그 통학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대성사랑으로 하고 라송5차 그리고 앞으로 입주하게 될 제일풍경채하고 중해마루힐 이렇게 4개 단지 아파트 학생들이 그 통학로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통학로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통학로가 청호시장 앞에 개설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단지 학생들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하여]

최환석 의원
우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 운용, 관계인구 설정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홍률 시장
일단 조례가 11월 21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최환석 의원
시장님, 조례 제정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지자체들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영암만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저희들은 이제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는 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환석 의원
시장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에 공신 챙기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무슨 공신 챙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를 지지했건 다른 분을 지지했건 공모에 응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포용적인 행정을 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중에 적격성이 있고 또 어떤 조직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선정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라치기로 대립각으로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죠. 이것이 뭐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환석 의원
본 의원은 임용후보자가 선거 공신인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의 경력 등의 자료 요구를 통해 판단하고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마킹처리하고 열람만 해 보자는 요구에도 관련 과에서는 개인정보상의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궁금해하고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용후보자가 임용되었을 때 어떤 직무와 성과를 내는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 12. 16.)

이형완 의원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도시건설위원회

[목포 시내버스에 관하여]

이형완 의원

시내버스가 파업하기 전에 노조의 요구조건이 있었지요? 1안이 2022년 인금 7.4% 인상, 2안이 근무일수 13일에서 12일 단축. 두 요구 중의 하나만 요구를 들어줘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노사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29일 파업이 끝나고 비용은 들어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있고 그러고 나서 파업 철회 조건이 임금이 3.2% 인상, 만근일수 12일. 그러면 애당초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면 파업을 하기 전에 이런 조건을 얼마든지 수용해가면서 29일간에 4억 6,500만원 예산 낭비 또 불편함 이런 거 없이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홍률 시장
7.4%를 무조건 관철해달라 하는 것이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3.2%로 다운을 시켰고 그러면 13일에서 12일로 줄어듦으로써 한 10억. 이거를 갖다가 같이 믹스해서 처리한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1안, 2안 중에 받아도 될 수 있다 하는데 막상 테이블에서는 이 사람들은 전체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일단 7.4%를 3.2%로 다운시켰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생계 또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근 일수 13일을 12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것을 우리가 협상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완 의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애당초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면 29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불편, 경제적 타격 이런 것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버스 문제가 계속 복잡하니까 좀 더 대응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홍률 시장
잘하자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면허 반납 내지는 노선권 회수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박홍률 시장
그 부분은 시장이 여기서 빠르게 단정적인 발언을 하기는 그렇고요. 회사하고 시 간에 가능한 협의를 잘해서 발 빠르게 처리해야만이 시민들에게 또 재정적인 모든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지 내가 발언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와 그걸로 감정싸움이 되거나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시장님,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버스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게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제도를 정착해 주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목포도 5개 내지 4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일부분은 부분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겠냐, 시범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래에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너무 무리다,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자 노선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를 권고드리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미니버스로 대체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권고해 드립니다. 2월이나 3월쯤에 아마 버스 제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본 의원이 말한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주변 시민분들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잘 만들어 보시게요.

[청소년센터 인근 도시공원 조성에 관하여]

이형완 의원
여기가 원도심 청소년회관 광장이거든요. 그 옆에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공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원동 쪽에서 올라가면 4m 내지 5m의 절벽 비슷하니 절개지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재미가 없어요, 일단. 주민들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대편 만호동입니다. 만호동에서 그 동산을 올라가는 계단인데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들이 산재해 있어요.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목원동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어서 이리 만호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또 만호동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여기를 넘어서 목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이 뒷동산 이 언덕이 조망권이 좋거든요. 이 지역을 전부 다 공원으로 시설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목포역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인 이 언덕을 제거해가지고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놔두든가 아니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박홍률 시장
소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요. 소유주들을 추적해서 폐가 같은 것도 전부 정리를 하고 총체적 예산이 폐·공가가 아마도 잡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올려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1.)

송선우 의원

산정동•대성동•죽교동•북항동
기획복지위원회

[목포시 출자 · 출연기관들의 운영 및 경영개선 촉구]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의료·복지, 교육·장학사업 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서비스행정을 충족하기 위해 12월에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을 제외한 아홉 곳의 출자 · 출연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78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다양함에 따라 민간경영참여가 곤란한 영역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자 · 출연기관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다양성 및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얼마 전 목포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이 부채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전남 시군기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제7조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원투자금이 잠식된 사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사실상 자본잠식선언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의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비용과 부채의 평가손실이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경영평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센터, 2025년에 준공 예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은 목포 우수 수산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출연기관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 3개 사업이 유사해 출연기관 간의 효율적 기능과 분담 측면에서도 통합 운영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과 같은 자본잠식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종합적인 진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사기능의 기관의 통합을 통해 예산 절약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물론 다양한 사업추진 시 첫째, 주민의 삶과 소득관계 둘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셋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출연기관의 기능 중복 방지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하여 말씀드리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1.)

정재훈 의원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관광경제위원회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

시내버스 파업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의 파업으로 시내버스 23개 노선과 157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측은 경영권 악화라는 명분을 삼아 시민의 이동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의료, 요식업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피해는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라. 더 이상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 방만한 운영을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현재 관광거점 4대 도시에 걸맞은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줬던 버스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멈춰서면서 목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본 의원은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와 목포시에서는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버스 운행 정상화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통칭 버스황제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대표가 목포 두 곳 외에도 영암과 무안의 버스회사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버스회사 모두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목포시에서 받는 11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더하면 세 곳 지자체에서 180억가량을 이 회사 대표의 소유 버스회사들이 지원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측은 휴폐업을 무기 삼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체불임금 24억과 가스요금 미납금 21억원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공익의 목적 실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회사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미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재정투명성 미확보와 공익적 가치의 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목포시의회에서는 태원·유진회사의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뜻입니다. 회사의 대표께서는 회사가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성장의 중심에는 목포 시민들이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85조에서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운수사업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버스 사측에 물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도대체 사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책무도 지키지 못하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목포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따끔하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 집행부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수십억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작금의 사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 운영 정상화 T/F팀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문제에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목포시 버스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운영에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버스 운영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왔던 태원여객, 유진운수의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목포시가 지난 10년간 버스회사에 지원한 수백 억원의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목포시내버스가 목포 시민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목포시의 행정 권위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1.)

유창훈 의원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기획복지위원회

[청년인구 유출 및 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목포의 청년인구는 5만 4,74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청년인구는 1만 1,869명 약 17.8%가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고용면에서도 '21년 목포시 청년 고용률은 29%로 전국 평균 44.2% 대비 15.2%가 낮고 전남 평균 37.2%에 대비해서 8.2%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 및 고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찬 도약!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라는 민선8기 시정 운영방침으로 청년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기본법 및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 되었으나 현재는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40대는 청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목포시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여 진정한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산업 집중에 따른 농어촌 도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군의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더욱더 폭넓게 49세까지로 규정하여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여 청년의 다양한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포에 청년들이 계속하여 지역에 정착하고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도 목포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청년 발전을 위한 혜택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범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및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하며 손 놓고 남만 따라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지역의 인구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주목하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하고 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지만 미래 목포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도내 시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미래 목포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인구가 미래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 12. 15.)

박용식 의원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발로서,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목포시의 시내버스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1966년 설립되어 56년이 넘게 목포시민이 내는 버스요금을 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게 되었고, 매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에는 11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거액의 혈세를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업과 휴업이라는 카드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줄고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두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개선에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철 대표께 묻습니다.
오랜 거래업체인 목포도시가스에 대한 상환계획도 납득시키지 못한 이한철 대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휴업과 폐업이라는 카드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촉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스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목포시에 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불철주야 뛰며 고민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기간 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노조의 요구사항은 1안은 임금인상 7.4%, 2안은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임금인상 3.2%에 만근일수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도 실패하고 파업기간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많은 예산까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23억 원의 가스비 체납 문제는 시내버스 파업 협상 과정에서도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폭탄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또다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 결단력 없는 교통행정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고통은 또다시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로 부득이하게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한 달도 안 되어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경제가 또다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내버스 문제에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대표께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목포시의 혈세를 지원받아왔음에도 아직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시민들의 혈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실성 있는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불편과 고통을 끼치고 근로자들을 임금체불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목포도시가스에 당부드립니다.
목포도시가스는 목포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한철 대표와 목포시, 목포도시가스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실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여 하루빨리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추진하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2. 12. 19.)

박효상 의원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관광경제위원회

[열악한 시 재정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한파에 버스정류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목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배경에서 재정과 예산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 아직 사용 가능한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또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던 날 인도와 차도에서 축 늘어진 할머님의 모습, 어느 날 아름다웠던 두 손을 가지고 있던 지금은 두 손이 새까맣게 타버린 파지를 주우시던 이름 모를 어머님 그리고 이 한파에도 손주를 키우겠노라고 쪽파를 까고 계시던 할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제가 시의원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일이 없겠다, 꼭 쓰여져야 할 데 쓰여지고 쓰여지지 말아야 할 곳에 쓰여지는 예산을 잘 살펴보겠다 다짐하고 각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잠깐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당당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눈치를 보고 돈 버는 궁리를 하듯이 현실 문제를 잘 처리해서 성공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는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 편성에 숙고하고 사업을 계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 도비와 국비를 운운하며 ‘도비, 국비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으로 의원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편성계획에 대해 목포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의 검증 없이 시비를 낭비해야 합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목포시에 잘 맞는 옷을 잘 골라 입어야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모르면서 남의 말을 듣고 산 옷들은 언젠가 옷장 한 켠에 있다가 쓰레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원과 자원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타 지자체와는 다른 차별성과 정체성이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지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깎느라 고생한다며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어떻게 써도 괜찮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의 모 청년이 치킨집을 하다가 세금이 밀리고 월세가 밀려서 마지막 돈으로 가게를 처분해서 직원들의 밀린 월급, 월세, 세금을 납부하고 모텔 쓸쓸한 어두운 방 한 켠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킨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했던 피 같은 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내 왔고 그 소중한 세금을 내왔던 소상공인들의 눈물 젖은 세금입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부강한 목포. 이대로 세금 운영해도 괜찮겠습니까? 2023년도 더 부강하고 새로운 목포를 위해 집행부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역시 예산의 충분한 이해와 논리적 사고로 집행부와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께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어디에 써야 겠습니까? 저는 목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재정이 받쳐주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립된 사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포의 가장 위중한 사안인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메이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집행부가 총력을 다했지만 풀기 힘든 이 문제. 고향사랑 기부금은 목포시에서 가장 위중한 사안, 버스 공영화의 몫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목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보고는 사업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강화, 차후 유사한 사업의 분석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부강한 목포를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현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1.)

백동규 의원

부흥동•신흥동•부주동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올해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재정분권 추진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무 등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수평구조의 의회조직의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외면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였고,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2만 목포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 가능토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1. 1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1.)

최지선 의원

부흥동•신흥동•부주동
기획복지위원회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지난 달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의 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그나마 틀을 잡아가고 있던 성 평등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또한 사회적 성 불평등의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낮은 여성 고용률, 고위공무원 및 기업 임원 비율 불균형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 다문화 가족 차별 해소, 다양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추구해 온 '성 차별 해소'와 '사회 대통합'이라는 이념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 그리고 아동과 가정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성 평등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이후 지지율 반등과 국면 전환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무시한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함과 더불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2022. 11. 1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2. 12. 19.)

박용식 의원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전남지역 의과대학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치를 약속하였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국정과제에 필수 의료 기반 강화라는 여지만 남겨둔 채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조차 전남 지역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남권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 특성상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로 전남은 중증 응급 환자의 지역 유출률이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무엇보다 전남 서남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30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물론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전남 서남권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의 설립을 추진하라!

2022. 12. 19.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
목원·동명·만호·유달동

정재훈 부위원장
목원·동명·만호·유달동

박효상 위원
용당1·용당2·연·삼학동

최환석 위원
이로·하당동

송선우 위원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유창훈 위원
목원·동명·만호·유달동

고경욱 위원
연산·원산·용해동

최원석 위원
삼향·옥암·상동

박유정 위원
비례대표

제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378회 제1차 정례회

- 의원연구단체「청년행복스쿨」2022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제379회 제2차 정례회

-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2. 11. 4.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2. 11. 22.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
부흥·신흥·부주동

최원석 부위원장
삼향·옥암·상동

김귀선 위원
용당1·용당2·연·삼학동

송선우 위원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유창훈 위원
목원·동명·만호·유달동

최지선 위원
부흥·신흥·부주동

박수경 위원
비례대표

기획복지위원회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주관하며 시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23.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는 동 행정주민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돼 있거나 그런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부위원장

"일반시민들이 시정의 기본적인 업무에 관하여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해요.

김귀선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목포시 각 부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목포 행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선우 위원

"시의료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목포시민들의 의료 개선과 또 의료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방침과 의료서비스, 복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 위원

"현재 목포시가 지원하는 것은 청년과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고 중장년층 지원사업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해서 시에서는 각별하게 연령층대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선 위원

“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련 과에서 한계가 있다면 꼭 어린이급식관리센터나 유관기관에 협력해서 관리를 잘 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 거죠. 조리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꼭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수경 위원

“목포가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꾸준한 단속과 또 단속 이후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로 뛰는 의정, 현지활동〉

목포시가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시보건소

목포시의료원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
이로·하당동

박효상 부위원장
용당1·용당2·연·삼학동

박창수 위원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정재훈 위원
목원·동명·만호·유달동

고경욱 위원
연산·원산·용해동

최현주 위원
연산·원산·용해동

최유란 위원
비례대표

관광경제위원회는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을 주관하며 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23.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

“오늘도 변함없이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과 시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효상 부위원장

“지역의 산업 중에 가장 기초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만 목포시가 분명히 앞으로도 발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욱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경기장을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방안을 잘 찾으셔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위원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어민들을 생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시가 어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TAC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하고 각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경욱 위원

“저는 본예산에 대해서 참 훌륭히 잘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전에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후 특정업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금액이 크든 안 크든. 특정 업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

“관광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일제의 역사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제의 역사가 있었다면 조선인의 항거의 역사가 또 한쪽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중심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란 위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의정, 현지활동〉

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수장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
용당1·용당2·연·삼학동

최환석 부위원장
이로·하당동

이형완 위원
목원·동명·만호·유달동

조성오 위원
연산·원산·용해동

이동수 위원
삼향·옥암·상동

박용준 위원
부흥·신흥·부주동

박유정 위원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사항을 주관하며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 · 개정 및 현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23.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

“전동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대상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SNS 홍보활동도 서로 간에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무장애승강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도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형완 위원

“빈집을 정리해야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이 방지되고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할 빈집,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빈집을 분리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

“심각한 기후시대에 강수량에 의존한 식수원 확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도서지역 같은 데는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아무래도 제설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도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안 하나 드려보자면 트랙터에 부착용을 각 마을에 하나씩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비상벨을 보면 저곳으로 내가 뛰어가면 저 사람으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라. 그래서 눈에 띄는 색깔로 그 CCTV 기둥을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그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느낌이 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도감면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목포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10년 넘게 방치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계획되어 다행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이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는 의정, 현지활동〉

안전총괄과 방재창고

민방위교육장

광장오피스텔

목포근대역사관 1관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부위원장 **박수경**

최원석

송선우

유창훈

박효상

박창수

정재훈

최유란

최환석

박용준

박유정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심사가 진행됐다.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세입분야 : 원안가결
- 세출분야 : 수정가결(일반회계 1억 8,500만원 삭감, 특별회계 940만원 삭감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결과

- 세입분야 : 수정가결(2억 8.350만원 삭감)
- 세출분야 : 수정가결(일반회계 36억 203만 6,000원 삭감, 특별회계 1억 2,639만원 삭감)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 10. 4.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유치 합의문 서약식

2022. 10. 5.
성평등 릴레이 포럼

2022. 10. 14.
목포항구축제

: 의정포토

2022. 11. 7.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정책간담회

2022. 11. 11.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2022. 12. 18.
가뭄대비 물 절약 캠페인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운영 안내

- **접종대상** :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전국민
- **접종백신** :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3종)(모더나 BA.1, 화이자 BA.4/5)
  *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
  * 12~17세 청소년은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만 활용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후 접종 가능
  *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 연기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누리집), 콜센터예약(270-4361~64)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57개소
- **문　　의** : 목포시 건강증진과 ☎061-270-8926

2023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빈집철거, 리모델링 지원(최대 동당 5백만원 지원)
- **공고기간** : 2023. 1. 5. ~ 12. 31.
- **신청자격**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소유를 증명한 자
- **대상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단독주택 우선 지원
- **접수장소** :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목포시 건축행정과 ☎061-270-3472

시민의 목소리

의회나 의정소식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500자 이내)을 보내주세요. 2명의 의견을 선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기한 : 2023. 2. 28. | 보낼곳 : jio1379@korea.kr | 기재사항 : 성명, 연락처, 의견

연락처는 상품 발송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 후 즉시 파기됩니다. 의견을 보내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MEMO